

가로공간에 있어서 아이덴티티 요소와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dentity Elements in the Street Spaces

곽 등 화* , 이 정 미**
Kwack, Dong-Wha Lee, Jeong-M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esign elements useful to give place identity to street space. The theory for place identity is studied and the components—*Physical element, Sense, Program, Activity, Context*—for identity of place is created. In the case study of SamcheongdongGil,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of Free Picturing Technique and Cognitive Mapping is executed and the samples gathered from the research are analyzed. In the process of analysis, the contents of qualitative evaluation by users is put in order as components for identity of place. Moreover, the design elements for street space are extracted from the case study and theories of urban design. The design element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street pattern with high permeability, various streetscapes, greenscapes, semi public(private) spaces, the third places, public arts, transparent facades, and outdoor activities. Finally, the fruits and boundary of this study are described and the importance of place identity is.

키워드 : 가로공간, 장소아이덴티티, 디자인 요소, 질적 평가, 삼청동길

keywords : Street Space, Place Identity, Design Elements, Qualitative Evaluation, SamcheongdongGil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공간에 관한 이슈는 보행하기 편안하고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공간체계의 형성에 모아지고 있다. 근대이후 중시되어 온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은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도시공간이 개성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저해시켜 왔다.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자체는 인간중심의 도시공간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소하천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의 구축, 중심상업지역의 가로공간의 리노베이션, 단독주택지에 있어서 담장 허물기를 통한 주차공간의 확보에 의한 골목길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실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공간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도시공간들이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각 지자체마다 동일한 목적의 도시공간을 건설하고 있지만, 각 유형의 도시공간들은 개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같은 모습의 도시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 도시공간의 매력을

발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이와 같이 도시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양적 공급에 비하여 각각의 도시공간들이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는 가로공간을 대상으로 아이덴티티의 관점에서 이용자 조사와 이론고찰을 병행함으로써 아이덴티티 형성을 위한 가로공간디자인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가로공간은 가로공간의 연구로 저명한 루돌프스키의 아래 서술한 정의와 같이 복잡적 대상과 다양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서 다른 유형의 도시공간보다도 아이덴티티라는 본 연구의 주제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즉 그는 가로(街路, street)를 구역이 아니라 볼륨으로서 나란히 서있는 건물과 하나이고 도시의 거실과 놀이장소가 되어 다양한 인생의 드라마가 연출되는 다의적 장소로서 도시커뮤니티 고유의 생명을 배양시켜가는 모체로서 정의하였다.

1.2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심리학 및 환경심리학, 지리학 분야에서 행해진 아이덴티티(identity)의 개념정의를 요약한 후, 건축 및 도시설계분야에서 나타나는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이론을 고찰한다. 건축 및 도시설계분야는 장소 아이덴티티(place identity)라는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여 장소와 아이덴티티의 합성 개념으로서 아이덴티티의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

* 정희원, 디자인학박사, 시립인천전문대학 건축과 전임강사
** 정희원, 디자인학박사, 인덕대학 도시환경디자인과 전임강사
이 연구는 2009년도 시립인천전문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3장에서는 2장에서 이해한 아이덴티티의 개념에 기초하여 사례연구(삼청동길의 사례)를 행한다. 사례연구에서 가로공간에서의 아이덴티티 요소가 물리적 요소에 대응된 내용적 요소의 짝으로서 추출된다. 각 물리적 요소에 대응되는 내용으로서 감각(Sense-이용자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느낀 감각적 의미 내용), 활동(Activity-가로공간에서의 이용, 행동, 활동에 관계된 내용), 맥락(Context-가로공간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인 것에 관계된 내용), 프로그램(가로공간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관계된 내용)이라는 4가지 유형의 틀을 만들어서 분석을 행한다. 이러한 4가지 틀은 가로공간이라는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의 결과,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지각환경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사례조사는 이용자에 의한 자유사진촬영(점적 조사)과 인지지도작성(면적 조사)이라는 질적 조사방법을 채택한다.

4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알아낸 사례대상지의 아이덴티티 요소를 건축 및 도시설계분야의 이론과 병행하여 이해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아이덴티티 형성을 위한 가로공간디자인 요소를 도출해낸다.

마지막장에서는 본 논문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성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친다.

2. 장소아이덴티티 개념의 고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identias'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정체'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통 이 말은 심리학에서는 동일성, 주체성, 자기정의, 정체감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그것이 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독자성' '정체성' '개별성'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건축 및 도시설계와 관련하여 아이덴티티 개념은 다음과 같은 해석에 의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즉, 아이덴티티란 다른 것과 구분되는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의 아이덴티티, identity of)이면서, 동시에 어떤 것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에 대한 아이덴티티, identity with)¹⁾이라는 두 개의 해석이다. 전자와 관계하여 공간의 아이덴티티 또는 장소의 아이덴티티(identity of space or place)는 공간 또는 장소 그 자체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 반면, 후자와 관계하여 공간에 대한 아이덴티티 또는 장소에 대한 아이덴티티(identity with people in space or place)는 인간과 공간 또는 장소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인간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아래 절들은 이러한 두 개의 해석에 대하여 설명하고 여기서 얻은 지식을 3장의 사례연구에서 조사 및 분석방법에 활용한다.

2.1 장소에 대한 아이덴티티

장소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자아 아이덴티티(self identity)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장소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인간의 자아 아이덴티티의 한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공간이나 장소와 관련된 인간의 자아 아이덴티티에 종속된 아이덴티티를 말한다.

환경심리학자인 프로센스키와 그의 동료들은 물리적 장치들(physical settings)이 인간의 발달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장소에 대한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장소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지들로 구성되는 자아 아이덴티티의 하부구조"로 보고 있으며 인지의 요소를 "기억, 생각, 감정, 태도, 가치, 선호도, 의미, 그리고 행위나 경험에 대한 개념들"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장소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환경과 관련된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 신념, 선호도, 감정, 가치관, 목표, 행동습관이나 기술 등의 복잡한 패턴에 의하여 물리적 환경과 관련시켜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자아의 여러 차원들 중의 하나로 해석한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생애를 통해 지속적이면서 동시에 변하는 것으로 주택과 그 주변 환경이 자아-정의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²⁾ 우리는 종종 '나는 어디에 살고 있다' '나는 어느 지역출신이다' '나는 어떠한 주 택유형에 살고 있다' 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곤 하는데, 장소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자아 아이덴티티의 하부구조로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일 것이다.

다음 절은 위에서 설명한 장소아이덴티티 개념에서 더 나아가 건축 및 도시설계와 보다 더 밀접하게 관계될 수 있는 장소의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설명한다.

2.2 장소의 아이덴티티

장소의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해당 장소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해석에 따른다면 먼저 장소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소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과 문학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고 또한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 지리학자인 루커만(F. Luckermann)³⁾은 장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6가지 주요 요소로서 설명한다.

첫째, 위치개념, 특히 다른 사물이나 장소와 관련된 위치는 절대적으로 기본적인이다. 위치는 내적인 특성(site)과 다른 위치와의 외적 연결성(situation)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장소는 공간적인 범위, 내부와 외부를 가진다.

둘째, 장소는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장소는 자신만의 질서, 즉 고유한 앙상블(ensemble)을 이루고 이를 통해 다른 장소와 구별된다. 이것은 모든 장소가 고유한 실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장소가 고유하지만, 장소는 공간적 상호 작용과 이동의 체계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장소는 하나의 순환(circulation)구조의 일부이다.

1)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307

2)하재명, 물리적 환경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p16

3)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 외 역, 전개서, pp28-29

넷째, 장소는 국지적이다. 즉, 장소는 더 큰 지역의 부분이고 지역분화체계의 초점이 된다.

다섯째, 장소는 끊임없이 새로 나타나거나 생성되고 있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지고 낡은 요소들은 사라진다. 그래서 장소는 독특한 역사적 구성요소를 지닌다.

여섯째, 장소는 의미를 가진다. 장소는 인간의 믿음에 따라 규정된다. 지리학자들은 왜 장소가 인간의식 속에서 하나의 사실적 사건이 되는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인간행위의 바탕에는 장소가 있으며, 인간 행위는 다시 장소에 특성을 부여하게 된다.

위 루커만의 장소개념에서는 위치가 있는 어느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형성되는 공간이 갖는 독특한 특성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환경심리학자인 칸터(David Canter)를 비롯한 여러 환경심리학자들은 장소를 시공간 환경맥락, 경험과 사용의 방식, 의미와 가치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세 가지 구성요소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장소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사용해서 장소를 간단히 정의하면 장소는 경험(사용)을 통해 의미(관념)가 부여된 공간(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

위의 여러 연구 예들에 기초하여 장소의 구성요소를 물리적 요소, 그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활동, 이들이 존재하게 되는 시공간적 맥락, 그리고 이들이 갖는 의미의 네 가지 요소로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장소 개념과 장소의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장소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장소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장소 구성요소들이 상호조립되어 지각주체의 지각활동에 의해 해당 장소의 아이덴티티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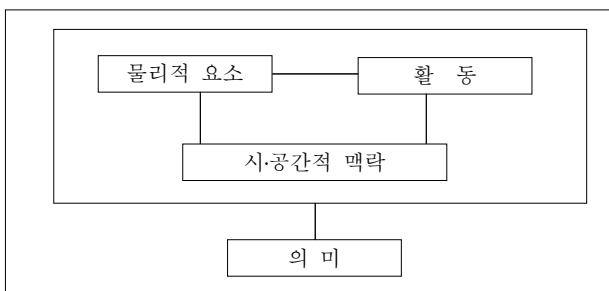


그림 1. 장소의 아이덴티티 구성요소들과 상호관계⁵⁾

2.3 장소아이덴티티의 경험적 차원

장소의 본질은 ‘내부성과 외부성’의 시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시점은 안에 있는 가 또는 밖에 있는 가와 같은 공간적 시점이기도 하지만, 지각 주체가 외부자인가

내부자인가 라는 경험의 강도와도 관계되는 시점이다.

노베르그 슐츠는 “내부에 있다는 것은 장소 개념 뒤에 숨겨진 중요한 의도이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떨어진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린든(Lyndon)은 장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 분리된 내부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부에 있다는 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다”고 했다. 그것은 안전과 위험질서와 혼란, 비호와 노출,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와 거기의 차이이다⁶⁾.

슐츠와 린든의 위 표현들에서 나타나는 외부와 내부, 여기와 거기는 장소를 체험하는 지각주체자 각각의 경험의 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된다. 그것은 렐프의 장소 체험의 7단계 분류⁷⁾에 따라서 이해될 수 있다. 즉, ①실존적 외부성(existential outsidersness)-체험에 있어 가장 피상적인 단계로서 장소에 대한 무관심 또는 장소로부터 소외를 의미한다. ②객관적 외부성(objective outsidersness)-아카데미한 지리학적 측면에서 장소의 공간구조를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한 태도이다. ③부수적 외부성(incidental outsidersness)-객관적 외부성의 본질이 의도적으로 채택한 지적 태도라면, 부수적 외부성은 대개 무의식적 태도이다. 장소는 활동을 위한 배경이나 무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경험되며 인간활동에 대하여도 매우 부수적 존재이다. ④대리적 내부성(vicarious insidersness)-간접적이거나 대리적인 방식으로 장소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소설이나 그림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되는 것을 의미한다. ⑤행동적 내부성(behavioural insidersness)-장소가 사건의 배경이 되는 부수적 외부성과 대조적으로, 행동적 내부성은 신중히 그 장소의 모습을 주목하는 것으로 외관의 물리적 특성이 결합되는 방식에 집중된다. ⑥감정이입적 내부성(empathetic insidersness)-장소에 대한 관심이 외관상의 특성에 관한 것에서 점차 감성적이고 감정 이입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⑦실존적 내부성(existential insidersness)-가장 강한 체험의 단계로서 이 장소가 바로 당신이 속한 곳이라는 사실이 암묵적으로 인지될 때 생기는데, 그 장소에의 소속인 동시에 깊고 완전한 동일시이다.

이 절에서 고찰한 경험적 차원에서 본다면, 지각 주체자의 속성에 따라서, 또한 해당 장소의 처음 이용자 인가, 자주 이용하는 자인가, 그곳의 거주자인가에 따라서 장소 아이덴티티에 대한 내용이 상이할 것이다. 즉, 장소아이덴티티에 대한 내용이 시각적인 것에서 점차적으로 감정이입적 단계, 더 나아가 장소와의 동일시의 단계로 이행되어 갈 것이다.

본 연구는 물리적 대상을 주요하게 다루는 건축 및 도시디자인의 입장에서 장소의 아이덴티티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다음 장에서는 가로공간에 대한 사례 연구를 행한다. 2.2절에서 고찰한 장소의 구성요소와 장소의 아이덴티티 정의는 조사, 분석을 위한 틀로서 사용

4)민병호, 도시주거의 비판적 휴머니즘, 시공문화사, 2006, p233
5)하계명, 박찬식, 주거지의 환경적 아이덴티티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2, 11, p28에서 참고

6)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 외 역, 전계서, p116
7)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 외 역, 전계서, pp119-118

된다. 2.3절의 장소아이덴티티의 경험적 차원은 피실험자의 사례대상 가로공간의 방문횟수와 인지지도의 내용 분석에 있어서 참고지식이 된다.

3. 사례연구에 의한 아이덴티티 요소 추출

3.1 사례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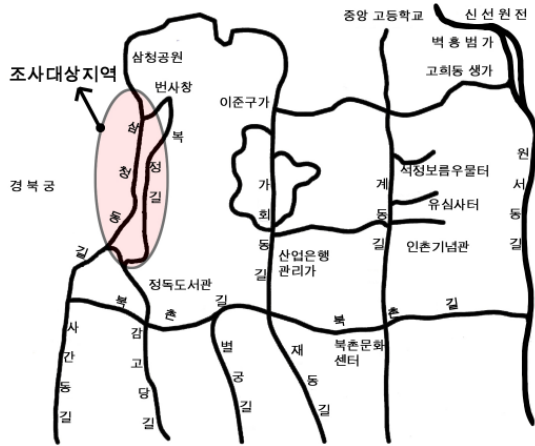


그림 2. 조사대상 주변 약도



그림 3. 조사대상구역

사례대상지는 삼청동길이다. 경복궁 오른쪽에 위치하고 프랑스로부터 시작하여 청와대 후문 부근까지 이어진다. 10여 곳의 갤러리가 소재해 있고 진선 북카페를 비

롯하여 다수의 카페가 있다. 이러한 다수의 문화시설과는 달리 비계획적으로 들어선 집들과 전통가옥, 좁은 인도 등 서울의 다른 거리와는 달리 무척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최근 매력 있는 가로공간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삼청동길의 실제사례를 통해 가로공간의 아이덴티티요소를 추출한다.

3.2 조사개요

조사대상지는 그림3에 표현한 구역이다. 34명의 피실험자에 대하여 자유사진촬영과 인지지도작성의 두 가지 기법의 조사를 행했다. 피실험자는 대학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참여자의 수는 34명(남성23명, 여성11명)이다.

자유사진촬영기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즉, 피실험자는 조사대상지를 자유롭게 장시간 산책하며 삼청동길의 개성 및 독자성이 잘 표현되고 있다고 느끼는 곳의 사진을 자유롭게 다수 찍는다. 피실험자는 귀가 후 그 사진들 중에서 개성 및 독자성에 관한 베스트10장의 사진을 그림3과 같은 형식으로 완성한다. 이 기법으로 340장의 그림4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지지도작성은 위 기법의 참여자 34명을 대상으로 삼청동길 방문 완료 후에 작성되었다. 총 32명이 조사대상구역의 특징, 개성 및 독자성을 표현하는 지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조사대상구역의 총 방문경험 횟수, 조사대상구역에 대한 개성 및 독자성에 관한 4단계의 평가를 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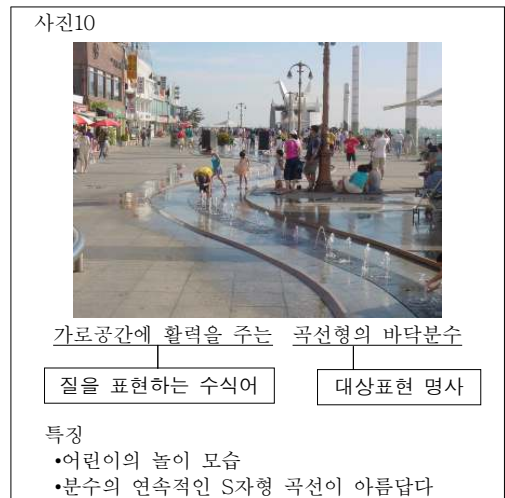


그림 4. 자유사진촬영 후 제출 형식 예

3.3 자유사진촬영 결과물의 분석

(1) 분석방법

그림4형식의 자유사진촬영 결과물 340장은 다음과 같은 틀로 분석한다. 제출된 사진 속의 대상표현 명사는 '물리적 요소'로 해석한다. '질을 표현하는 수식어'와 기입된 특징을 해석하여 위의 물리적 요소에 각각 '감각(Sense-이용자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느낀 감각적 의미 내용)', '활동(Activity-가로공간에서의 이용, 행동, 활동에 관계된 내용)', '프로그램(가로공간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관계된 내용)', '맥락(Context-가로공간이 속한 사회

적,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인 것에 관계된 내용)이라는 내용(의미)을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고찰되고 장소의 아이덴티티 요소가 추출된다. 이러한 감각, 활동, 프로그램, 맥락이라는 내용들은 2장에서 정리한 장소의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들을 참고하여 적용한 것이다.

(2) 분석내용

아이덴티티 내용별 요소들, 즉 감각, 활동, 프로그램, 맥락들 중에 가장 높은 출현빈도수(일부 샘플은 복수집계됨)를 나타내는 것은 '감각'이다. 추출된 샘플의 질 표현 수식어 및 특징을 해석해 보면, '아기자기하다' '자연스럽다' '시원하다'와 같이 감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감각'에 있어서 가장 높게 집계된 물리적 요소는 벽/담이고 가로수/식재/정원, 골목길/언덕길/가로수길, 계단, 각종용도 건물의 순으로 이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삼청동길에서 예술성 있는 벽화가 다수 보이는데, 벽/담의 높은 출현빈도는 '아름답다' '여유를 느끼게 한다' '독창적이다' '유머스럽다' '이색적이다' 등의 감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의 결과로 판단된다. 삼청동길의 잘 자란 가로수와 더불어 주민에 의해 잘 가꾸어진 간이정원과 화분이 다수 보이는데, '상쾌하다'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등의 감각 표현이 다수 보인다. 삼청동길을 포함하는

조사대상구역은 휴먼스케일을 가진 골목길이 다수 존재하고 삼청동길의 우측구역으로 경사진 지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산재해 있다. 골목길/언덕길/가로수길, 계단의 물리적 요소의 높은 출현빈도는 그러한 것의 반영으로 판단된다. '다른 세계가 나올 것 같다' '옛정취를 느끼게 한다' '활달함을 준다' '(휘어진 계단) 계곡의 느낌을 준다' '투시적 경관이다' '진취적이다' 등의 감각 표현이 다수 보인다. 삼청동길 구역은 외관이 잘 가꾸어진 다양한 카페 및 상점들이 다수 존재한다. 각종용도 건물의 높은 출현빈도는 그것의 반영으로 판단되고, '따뜻한 느낌이다' '편안하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 '친근하다' '아기자기하다' '오붓한 느낌을 준다' 등의 감각 표현이 보인다.

다음으로 활동에 관계된 아이덴티티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는 것은 가로공간/공터이다. 가로공간/공터에 대해서는 '쇼핑한다'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한다' '정화된 공기를 마실수 있다' '무엇을 만든다' '쉬게 해준다'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다' 등의 활동 표현과 '시각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활력이 넘친다' 등의 감각 표현도 보인다. 테이블/의자, 그리고 건물 앞 공간은 서로 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가로공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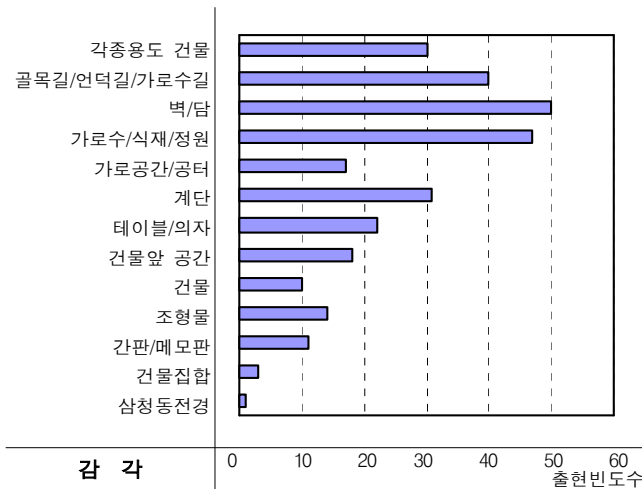


그림 5. 가로공간의 아이덴티티 요소 (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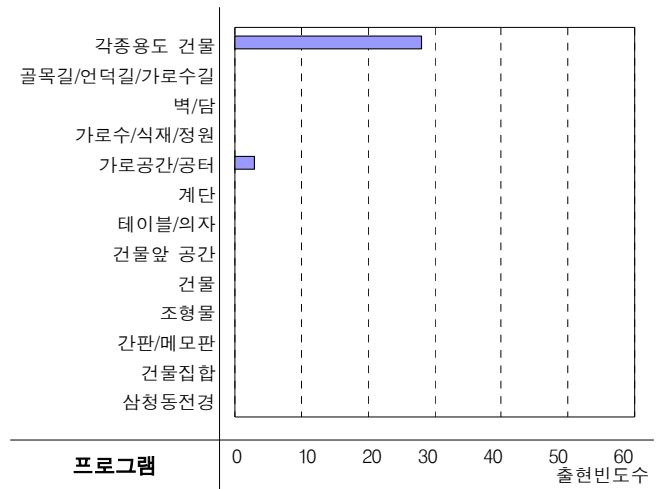


그림 7. 가로공간의 아이덴티티 요소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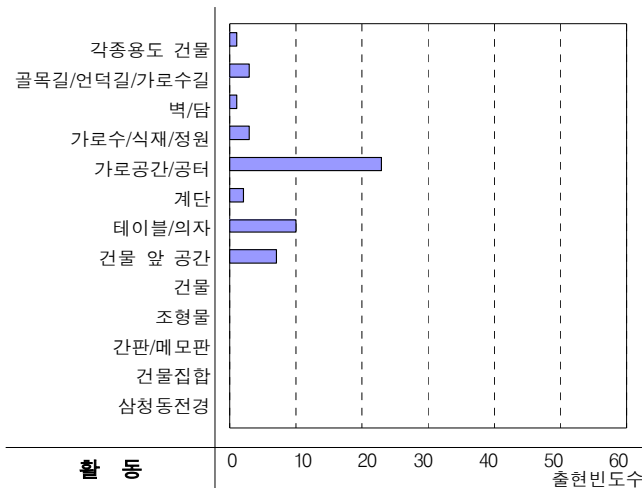


그림 6. 가로공간의 아이덴티티 요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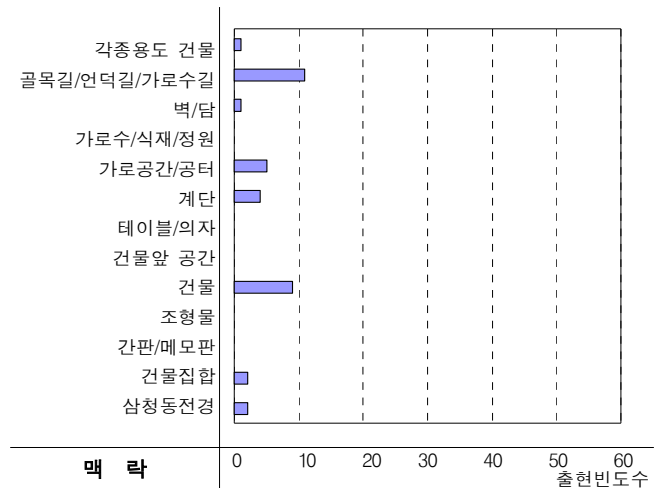


그림 8. 가로공간의 아이덴티티 요소 (맥락)

라는 공공공간으로부터 시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레이어의 공간에 테이블/의자가 놓여있는 사진이 많이 나타난다. '조망할 수 있다' '보행자를 관찰할 수 있다' '설 수 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다' 등의 활동 표현과 '휴먼스케일에 맞다' '편안하다' '아늑하다' 등의 감각 표현도 보인다.

프로그램에 관계된 아이덴티티요소에서 공터는 강한 특징이 된다. 평일에는 옥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터에서 베틀시장이 열리는 주말에 조사대상공간을 방문한 피실험자들은 이것을 아이덴티티요소로서 제시하였다. '다양한 쇼핑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다' '물건을 판다' 등의 활동 표현과 '새롭다' '인간적 분위기이다' '호기심을 자극한다' 등의 감각 표현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맥락에 관계된 아이덴티티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로공간의 배경으로 북한산이 보이는 사진 또는 길에서 멀리 산이 보이는 사진에 대하여 '북한산의 변화에 따라 4계절의 풍경을 볼 수 있다' '그 풍경으로 마음이 편안해 진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한다' 등의 맥락 표현과 '푸른산이 보여 좁은 골목길에서도 상쾌하다' 등의 감각 표현도 보인다. 한옥의 건축물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보여준다' 의 맥락 표현이 나타난다. 한옥과 어울어진 골목길에 대하여 '전통을 느낀다' '지역의 역사를 느낀다' '아름답다' 의 맥락 표현과 감각 표현이 나타난다. 계단의 경우는 '경사지형을 살린다' '석재 계단이 고풍스러움을 더한다' 등의 맥락 표현을 나타낸다. 건물 집합은 경사지형을 살려서 배치된 한옥건축군 또는 현대식 건물과 대비되는 사진의 경우에 나타나는데, '한국적이다' '경사지형을 느낀다' 등의 맥락 표현과 '아늑하다' 의 감각 표현도 보인다.

3.4 인지도도 결과물의 분석

위 자유사진촬영조사이외에 조사대상구역의 개성 및 독자성을 표현하는 지도를 작성하는 조사를 행하였다. 그 인지도도의 내용 분석의 결과, 그림9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이 분류되었다. 즉, 자연적 맥락 중시형, 활동 및 프로그램 중시형, 그리고 이 두 유형의 통합되어 나타나는 복합형이다. 자연적 맥락 중시형을 해석해 보면, 경사지형 및 그것의 결과 생겨난 수많은 계단들, 비계획적으로 보이는 가로패턴의 물리적 요소들이 아이덴티티 요소로서 나타난다. 활동 및 프로그램 중시형을 해석하면, '일본인이 많이 찾는다는 호떡집'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요거트아이스크림집' '노점상이 모여있는 곳' '재미있는 낙서 담장' 등과 같은 이용과 생활에 관계된 내용이 담겨있다. 복합형의 경우는 위의 맥락과 활동에 관계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가 균등하게 나타난다. 복합형을 해석해 보면, 경사진 지형, '수호신 같은 은행나무 가로수길' '바위가 보이는 산' '횡단보도 건너려면 너무 오래걸림' '아기자기한 카페골목' '한옥과 대비되는 외국인' 등과 같이 다양한 아이덴티티 요소가 나타난다.

그림10은 조사대상구역의 방문경험회수와 활동 및 프로그램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방문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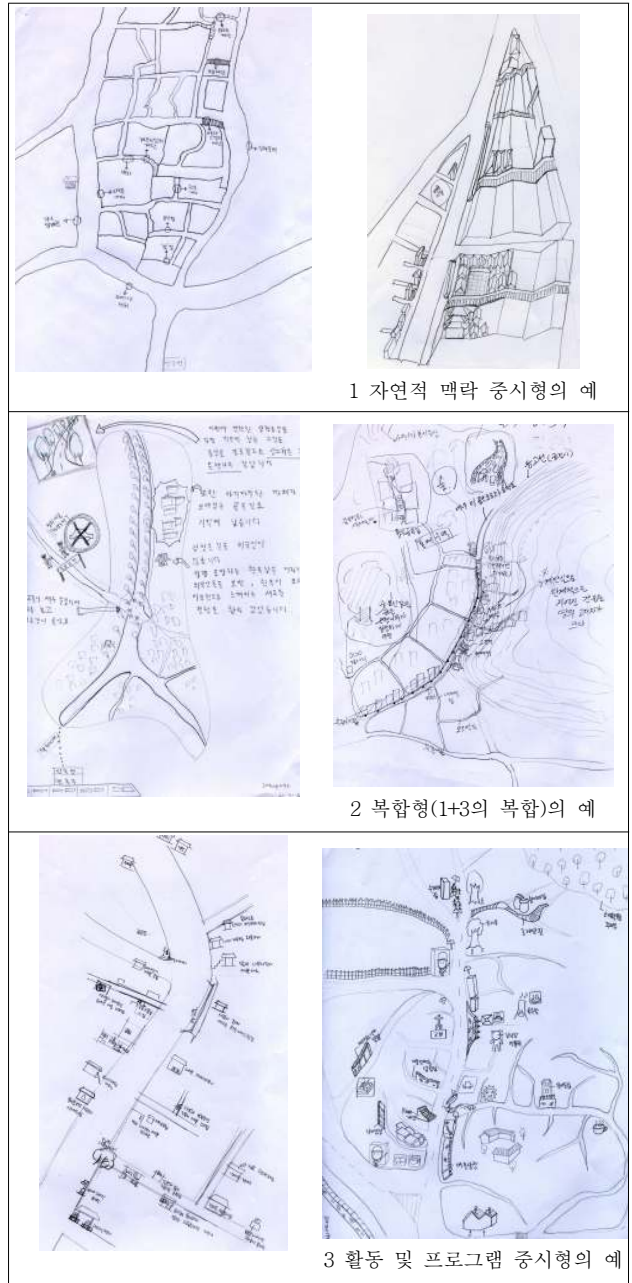


그림 9. 인지도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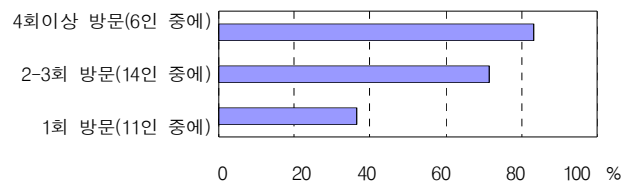


그림 10. 방문회수에 따른 활동 및 프로그램 내용의 출현율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활동 및 프로그램이라는 아이덴티티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가로공간의 이용자는 방문경험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물리적, 시각적 특성을 중시하는 것으로부터 활동 및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경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3.5 소결

그림11의 결과는 삼청동길이 아이덴티티가 강한 가로공간으로서 이용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삼청동길의 아이덴티티를 ‘맥락’ ‘감각’ ‘프로그램’ ‘활동’의 측면에서 물리적 요소와 대응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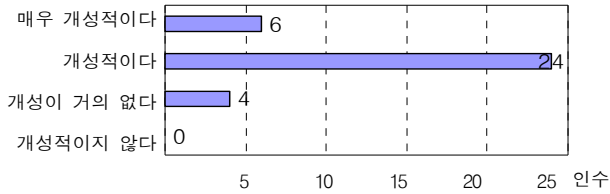


그림 11 조사대상구역에 대한 평가

삼청동길에 대한 ‘맥락’은 삼청동길의 배경(ground)이 되는 북한산, 경사지형, 가로수길, 한옥군들, 골목길, 계단 등의 물리적 요소와 대응된다. 삼청동길에 대한 ‘감각’은 벽, 가로수 및 식재, 길, 계단, 각종용도 건물들 등과 주요하게 대응되고 이들 이외의 요소들과도 대응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내포한다. 삼청동길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용도의 건물, 가로공간 및 공터와 대응된다. 삼청동길에 대한 ‘활동’은 가로공간, 테이블과 의자, 건물 앞 공간, 길, 가로수 및 식재 등과 대응된다. 이와 같이 삼청동길은 다양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색다른 개성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아이덴티티형성을 위한 가로공간디자인 요소

이장에서는 앞장에서 파악한 구체적 아이덴티티요소를 참고하여 아이덴티티형성을 위한 가로공간디자인 요소를 도출한다. 그러한 가로공간디자인 요소는 가로공간의 계획 및 설계를 지침적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1 가로공간디자인 요소 도출

앞장의 그림5,6,7,8의 내용과 자유사진촬영 후 제출된 자료, 인지도자료의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요소는 ‘침투성 높은 가로패턴’ ‘다양한 유형의 가로경관’ ‘그린스케이프’ ‘중간영역’ ‘제3의 장소’ ‘공공예술’ ‘투명적 파사드’ ‘사회적 활동’의 8가지 요소들이다. 이 8가지 요소들에 관한 그림12,13의 사진들은 피실험자들에 의한 자유사진촬영의 결과물에서 수집된 예들이다.

4.2 가로공간디자인 요소 고찰

(1) 침투성 높은 가로패턴

조사대상구역은 작은 가구(block) 크기의 자연발생적이고 비계획적 형상의 가로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로패턴은 가로공간의 침투성⁸⁾을 높이고 있다. 높은 침투

8) 침투성이란 “어떤 환경이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

가로공간에 있어서 아이덴티티 요소와 평가에 관한 연구

성은 이용자들에게 보행동선 선택의 가능성을 높이고, 가로공간의 표정을 다양하게 하고, 교차점의 수가 많아짐으로서 상점의 3면이 가로공간에 개방되기 쉬워진다. 이러한 작용의 결과, 가로공간은 방문객이 많아지고 활력성이 높은 장소가 되기 쉬워진다.

아이덴티티요소 중 ‘감각’의 내용인 ‘세 가지 길이 하나로 만나는 이 공간은 서로 다른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느낌을 준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활달한 느낌이 든다’ 등의 표현, ‘활동’의 내용인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아 쇼핑하기에 좋다’의 표현 등에서 침투성 높은 가로패턴의 작용이 읽혀진다.

(2) 다양한 유형의 가로경관

가로경관의 구성요소는 접합점(junctions), 선(lines), 폭(width)의 변화, 가로천정의 형태(overhead), 가로의 형태(features), 둘러싸기(containment)로 분류⁹⁾해 볼 수 있고, 그것들의 조합에 의하여 다양한 시각적 아름다움의 가로경관이 형성된다. 조사대상구역은 경사지형의 특성,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발생적 가로패턴 등에 의해 위 구성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조합되어 다양한 유형의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아이덴티티 요소 중 ‘감각’의 내용인 ‘곡선형 도로는 물길을 연상시킨다’ ‘휴먼스케일에 적합하다’ ‘S자형의 곡선이 가파른 경사지를 부각시킨다’ ‘식물이 골목의 위를 덮어 골목길에 문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골목길 끝에 시선을 집중시켜준다’ ‘차도보다 높은 보행로는 시야를 넓혀준다’ ‘골목길의 끝에는 다른 세계가 나올 것 같다’ ‘완만하게 굽은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푸른산이 보여 좁은 골목길에서도 상쾌하다’ 등의 표현이 보인다.

(3) 그린스케이프

도시공간에서도 정원과 수목 및 식재 등을 통해 사계절의 감각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식물의 형태는 복잡한 음영을 가지고 있어서 깊이감 있는 부드러운 윤곽을 만든다. 그 부드러운 윤곽이 딱딱한 건물이 많은 도시의 경관을 부드럽게 해 줄 것이다. 조사대상지의 아이덴티티의 물리적 요소 중 가로수/식재/정원은 높은 출현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삼청동길의 잘 자란 가로수는 가로경관의 골격적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 골격적 요소에 더하여 주민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가꾸어진 소정원, 골목길의 화분 등은 가로공간의 질적 이미지를 높이면서 이용자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아이덴티티요소 중 ‘감각’의 내용인 ‘녹차 아이스크림을 연상시키는 싱그러운 가로수’ ‘대문 양쪽의 꽃은 사람에게 마치 꽃을 선물하는 것 같다’ ‘골목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텃밭은 반갑다 못해 온몸이 짜릿해지는 느낌을 준다’ ‘아침햇살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름다운 꽃들의 순애보를 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가”라는 개념으로 정의. [http://en.wikipedia.org/wiki/Permeability_\(spatial_and_transport_planning\)](http://en.wikipedia.org/wiki/Permeability_(spatial_and_transport_planning))

9) Jim McCluskey, Road form and townscape, reed international books, 1992



그림 12. 아이덴티티 형성을 위한 가로공간디자인 요소

침투성 높은 가로패턴 - Street Pattern with High Permeability



중간영역 - Semi Public(Private) Spaces



그린스케이프 - Greenscapes



옥외활동 - Outdoor Activities



그림 13. 아이덴티티 형성을 위한 가로공간디자인 요소

킨다' 등의 표현에서 그린스케이프의 효과를 읽을 수 있다.

(4) 중간영역

가로공간의 공적 영역과 각종용도건물의 사적 영역사이에 형성되는 반공적(사적) 영역의 수가 많을수록 가로공간은 다양한 인간적 접촉이 일어나게 되어 그 가로공간은 활력 넘치는 장소가 된다. 차양 및 벽으로 둘러싸인 곳, 단 높이의 차로 분리된 곳 등의 다양한 중간영역이 조사대상구역에서 발견된다.

아이덴티티요소 중 '감각'의 내용인 '아늑한 느낌이다'의 표현과, '활동'의 내용인 '일광욕을 즐길 수 있다' '전경을 조망 가능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휴식할 수 있다' 등의 표현에서 중간영역의 작용을 볼 수 있다.

(5) 제3의 장소

제3의 장소는 잘 방문하는 거리의 친근한 장소라는 의미로서 카페, 커피숍, 책방, 바, 미장원 등을 가리킨다. 제3의 장소의 중요성을 주장한 레이 올덴버가(Ray Oldenburg)는 집을 제1의 장소로, 직장을 제2의 장소로 정의하였다¹⁰⁾. 가로공간을 커다란 집이라고 하면, 장소는 누구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실이다. 거실이기 때문에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대화를 즐기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조사대상지는 다양한 개성을 표출하는 위와 같은 거실이 다수 존재하여 다양한 분위기와 문화를 방문자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게 하고 있다.

아이덴티티요소 중 '감각' 내용인 '퇴근길에 꼭 들리는 방앗간집 떡볶이' '시골의 처갓집을 연상시키는 한옥의 식당' '폴밭에서 차를 마시는 느낌이 나는 카페'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 주는 북 카페' '친근한 느낌을 주는 테이크아웃 카페' 등의 표현에서 다양한 제3의 장소를 찾을 수 있다.

(6) 공공예술

조사대상구역의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벽/담의 물리적 요소가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벽/담에 벽화를 그리거나 조형물을 설치한 사례가 많다.

공공예술에 관계해서 아이덴티티요소 중 '감각' 내용인 '밋밋한 골목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유쾌한 느낌을 준다' '친근감을 준다' '아기자기하다' '이 지역의 역사를 느끼게 한다' 등의 표현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다'의 '활동'에 관계된 표현도 보인다.

(7) 투명한 파사드

차경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건물이 필요하다. 건물과 벽의 투명성은 도시설계의 중요한 개념이다. 도시공간의 인터페이스는 가로와 건물이다. 건물에 창 등의 개구부가 없으면 그 인터페이스는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벽이 투명하게 개방되면 건물 안이 보이고 소리도 들리게 된다. 투명한 파사드는 호기심과 재미를 유발

시킨다. 알란 제이콥스는 투명성의 개념을 자신의 책에서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다¹¹⁾.

아이덴티티요소 중 '감각' 내용인 '전창을 통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하나 된 느낌을 준다' '여유로운 느낌이 든다' 등의 표현과 '활동' 내용인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을 통해 투명한 파사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8) 옥외활동

겔은 자신의 책에서 옥외활동을 필요활동, 임의활동, 사회활동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필요활동은 학교에 가거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우편을 배달하거나 의무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다. 임의활동은 산보하거나 관찰하거나 일광욕을 하는 등의 활동이다. 사회활동은 어린이들의 놀이, 인사, 회화, 각종 커뮤니티 활동, 사람을 관찰하는 등의 활동이다. 이와 같은 유형분류를 통하여 그는 질 높은 옥외공간에서는 임의활동 및 사회활동의 비율이 높은 것을 조사를 통하여 밝혀냈다¹²⁾.

아이덴티티의 물리적 요소인 가로공간/공터라는 세팅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아이덴티티로 보는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그것의 내용은 '활력을 느낄 수 있다' '가판대의 공예품들이 가로공간의 재미를 더해준다' '삼청동길은 사진 찍게 만드는 공간이 많다' '공터에서 벌어지는 바자회는 호기심을 유발한다' '팔고 사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등의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가로공간에 있어서 빈 공간의 역할, 바자회와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 반고정상요소로서의 가판대, 가로공간이 담고 있는 다양한 흥미유발요소의 역할 등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5. 결론

본 논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의 자유사진촬영 기법과 인지지도 작성의 조사방법은 이용자의 아이덴티티 요소의 질적 내용이 버려짐 없이 생생하게 수집되고 해석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복잡한 의식과 관계된 장소아이덴티티의 주제를 다루는 있어서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삼청동 길의 어떠한 요소와 요인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삼청동 길을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가로공간으로서 평가하게 했는지가, 사례연구를 통하여 객관화되었다.

셋째, 사례조사에서 얻은 생생한 자료와 가로공간의 이론을 함께 고찰하는 연구과정을 통하여, 가로공간의 계획 및 설계를 위한 지침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성과이외에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장소아이덴티티의 주제를 물리적 환경(요소)에 중점을 두고 행해졌고 가로공간의 이용자를 대

10) Matthew Carmona and Steve Tiesdell Ed. Urban design reader, Architectural press, 2007, pp163-169

11) Allan B. Jacobs, Greet streets, the MIT press, 1993, pp285-287

12) Jan Gehl著, 北原理雄屋 訳, 屋外空間の生活とデザイン, 鹿島出版, 1990, pp15-20

상으로 행해졌다는 점이다. 2장의 이론고찰에서 본 바와 같이 장소아이덴티티의 연구는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점,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서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일 것이다. 이 점에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세계화라는 시대적 영향으로 건축과 도시공간의 개성 및 독자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문제 상황 속에서, 최근 도시디자인의 주요 이슈는 장소 만들기(place making) 또는 장소아이덴티티의 창출에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행적으로 다수의 가로 공간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데, 그 가로공간들의 디자인 전략은 본 연구의 관점과 같이 장소아이덴티티의 창조에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전략의 적용의 결과,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가로공간의 창출이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Edward Relph 저,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2. C. Norberg-Schulz 저,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1985
3. 민병호, 도시주거의 비판적 휴머니즘, 시공문화사, 2006
4. 하재명, 물리적 환경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5. 하재명, 박찬식, 주거지의 환경적 아이덴티티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2, 11
6. Jan Gehl著, 北原理雄屋 訳, 屋外空間の生活とデザイン, 鹿島出版, 1990
7. Bernard Rudofsky著, 平良敬一 訳, 人間のための街路, 鹿島出版, 1973
8. Kevin Lynch著, 北原理雄屋 訳, 知覚環境の計画, 鹿島出版, 1976
9. Jim McCluskey, Road form and townscape, reed international books, 1992
10. Matthew Carmona and Steve Tiesdell Ed. Urban design reader, Architectural press, 2007
11. Allan B. Jacobs, Greet streets, the MIT press, 1993
12. <http://en.wikipedia.org/wiki/Permeability>

논문접수일 (2009. 10. 26)

심사완료일 (1차 : 2009. 11. 22, 2차 : 해당없음)

게재확정일 (2009. 11. 26)